



농생명산업 선도 신호탄 쏘아올려

도·대상·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육성 협약
7개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중 처음으로 기업과 맞손
김치원료 안정적 공급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 기술지원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
자치도가 대상(주)와 김치 산업의 거
점화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신
호탄을 쏘아올렸다.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농생
명산업지구 선도지역 가운데 처음으
로 기업과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실질
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규제혁신을 통
한 경제 활성화 등 글로벌생명경제로
시 구현에 기대감이 집중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회의실
에서 대상(주), 고창군과 함께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활성화'
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관련사진 3면)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정성 대상주식회사 종가R&D부문장
(상무),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했으
며, 협약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 활성
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비전
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은 농생명
산업지구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농가
를 위한 추가 특례를 발굴하고, 김치
원료 공급 거점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
한 생산기반 및 기업유치 환경조성 등
을 지원한다.

대상 주식회사는 김치 생산, 수확,
보관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을 이전
하고, 농가 조직화와 품질 균일화를
통해 김치 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상 주식회사는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1956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중
합식품기업으로, 세계 3대 발효전문기
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 주식회사 이정성 상무는 "전북
이 가장 강점을 지닌 분야인 농생명산
업을 육성하는 농생명산업지구와 함
계 동참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이
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창 사시사철 김

치산업지구가 국가 김치산업의 거점
화 단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하
겠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생
명산업지구에서 특례 적용, 행·재정
적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청년농 유
입 등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전북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생명산업지구 7개 선
도지역은 △고창군 사시사철김치특화산
업지구 △남원시 ECO 스마트팜 산업
지구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구축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
구 △익산시 동물용의약품산업 지
구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
△임실엔치즈·낙농 산업지구로 구성
됐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현재,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
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해 재판관 8명 전원이 참
석해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뉴시스

전주매일



14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2025년 전북여성 신년인사회에 김관영 도지사,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신년 떡케이크 커팅을 마친 뒤, 2036 하계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14일 재단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전북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지일관(初志一貫): 도전과 혁신
을 향한 여성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신년인사회는 전
북특별자치도의 더 특별한 100년을
향한 포부에 전북여성의 힘을 더하
는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유
정희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광미자 전북여
성단체협의회 회장, 전북YWCA 협
의회 이현순 회장 등 각계각층 인사

도전·혁신 향한 여성의 힘

2025년 전북여성신년인사회

전북의 특별한 100년 향한 포부에 여성 힘 더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 간 신년 인사를 시
작으로 국민의례, 축하공연, 신년사,
축사, 신년 떡 커팅, 덕담 및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의

꿈을 현실로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
출하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기
원 퍼포먼스를 참석자 전원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신

년사를 통해 "초지일관(初志一貫)
정신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밝은 미
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처음의 각
오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여성들
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전정희 원장은 "겨울잠에서 깨어
난 뱀의 강한 생명력처럼, 을사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성공의 모습으로
존재감을 빛낼 것"이라며 "전북여성
가족재단은 지역 여성계와 함께 힘
을 모아 전북의 꿈을 실현하는데 적
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민의 뜻 모아... 2036 올림픽 유치 기원 GBCH 챌린지 전개

전북자치도, 도민 관심·지지 확산 목표... 릴레이 등 형태로

된다.

첫 번째는 릴레이형 챌린지로, 김관
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 기업대표, 유명 인사들이 참여
한다. 이들은 전북 올림픽 유치 기원
인증샷 또는 영상을 기관 홈페이지나
개인 SNS 계정에 올리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는 자유 참여형 챌린지다. 도
내 체육계와 문화예술계, 대학생, 청소
년 등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36하계올림픽

#전북유치기원 등의 해시태그와 응원
문구를 인증샷과 함께 SNS 계정에 게
시하면 된다. 자유 참여형은 이미 SNS
이벤트 공유와 유튜브 응원 댓글을 통
해 약 1,300명이 동참했으며, 참여 열
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개최 후보 도시
결정 시까지 도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올림픽 홈
보영상 상영, 아동·청소년 대상 그림
공모전, 올림픽 체험존 및 포토존 운

영, 설맞이 캠페인 등이 있다. 이를 통
해 도민의 염원을 결집하고 전북의 올
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
다.

김관영 도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들의 관심과 응원이 매우 중요하다"
며, "지방 도시간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도민 여
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
조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다음 참여자
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을 지목하며 릴레이 챌린지
를 이어갔다. /이만호 기자

半九十里

반 반

아홉 구

열 십

마을 리

일을 끝마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함

위대한 도시
Great Iksan